

삼국지

Hwempire 황준영

최근에 너무나 재미있는 삼국지 게임



[PS5] 진삼국무쌍 오리진

■ 활동 Activities ■ 이 달의 타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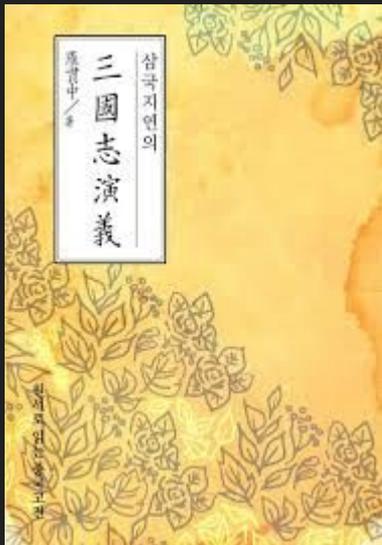
Hwempire genius5375

28일 전

「진 · 삼국무쌍 ORIGINS」 1st 트레일러



삼국지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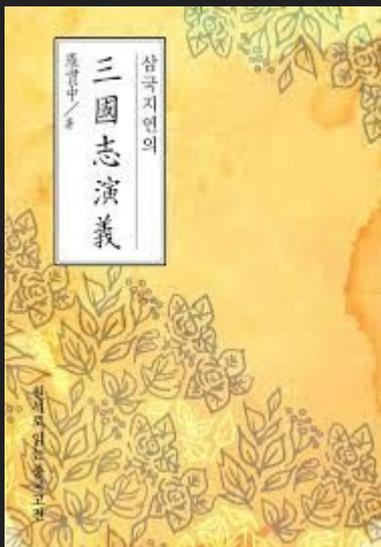


- 삼국지 연의
- 재밌음
 - 진위 판단 안해도 됨
 - 도파민 터짐



정사

- 역사서
- 진위 여부 판단 안됨



#NTR #볼룬 #순애 #패륜 #먼치킨
#판타지 #의리 #청춘 #경영 #배신
군중극 #전쟁 #전략

현대 삼국지 IP를 형성한 최고의
판타지 소설

그래서 뭐하는 이야기임?



위 촉 오 팩션



위



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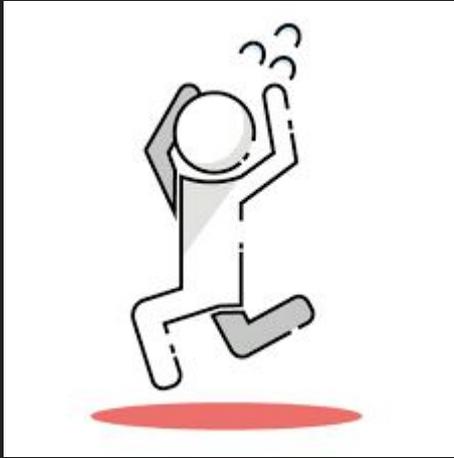


오

1. 유비(劉備)의 상황

- 유비는 한나라의 황실 후손(한실종친)임을 내세워 민중에게 신망을 얻었지만, 정치적 기반이나 군사적 세력이 약했습니다.
- 조조가 점차 강력한 중앙 권력을 쥐어가던 시기, 유비는 조조의 세력에 밀려 여러 차례 도망치고, 다른 세력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 유비는 의형제 관우, 장비와 함께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려 애썼으며, 백성들에게 '인덕(仁德)'과 '신의(信義)'를 강조하여 지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추



도망 다니는 조폭 건달들

AI 피셜 피난민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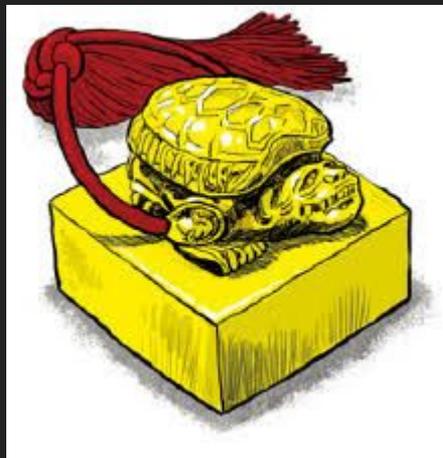
경영물이 아니라 모험물 짝고 있음

제갈량 삼고초려 했다도르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 오나라(동오, 東吳)는 적벽대전(208년) 이전까지 손책(孫策)과 손권(孫權)을 중심으로 세력을 다지며 강동 지역(양쯔강 하류)의 패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연의에서는 오나라가 주로 강동의 안정과 발전에 집중했으며, 조조(曹操)의 팽창을 경계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세력을 다지는 과정이 강조됩니다.



연의에서 나머지 두 팩션에 비해 언급이 없다

지도자가 자주 바뀜(손견 -> 손책 -> 손권)

사실상 강동 안정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함

손견, 손책 둘 다 허무하게 죽음

10



적벽대전 당시 오, 촉

결론

적벽대전 당시 유비는 오나라에 비해 병력, 경제력, 영토 면에서 현저히 열세였으며, 사실상 오나라의 도움 없이는 조조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나라가 주도하고 유비가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동맹 덕분에 적벽대전의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조조의 세력 확장 배경

- 조조는 200년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대파하며 북중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 이후 202년~207년까지 약 5년간 원소의 잔여 세력(원담, 원상)을 제거하고, 유주와 병주 등 북방 지역을 안정시켰습니다.
- 또한, 조조는 흉노, 오환, 선비 등 북방 유목 민족들을 제압하여 북방 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



사실상 적벽대전 전까지 주인공

- 군웅할거
- 여포 제압
- 황제 입수
- 관도 전쟁 승리로 인한 중원 제패
- 오랑캐 제압 및 협상을 통한 안정화(고구려 포함)

관도대전

2. 병력 및 자원 비교

항목	조조	원소
병력	약 2만 명	약 10만 명 이상
물자/보급	허약한 상태, 지속적 부족	풍부한 물자와 지원
지휘체계	철저한 중앙집권형 지휘	복잡하고 분열된 지휘체계

원소는 압도적인 병력과 물자를 보유했지만, 내부적으로 지휘관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고, 전략적인 결단력에서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반면, 조조는 병력과 자원이 부족했지만, 조직력과 유능한 참모들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관도대전



VS



요약

족 - 족나라라 부를 땅도 없이 그저 용병 집단

오 - 강동 일대 패자, 산월족 및 지방 호족과 단합 (물리) 에 열중

위 - 사실상 중원의 알짜배기 를 전부 점령 중이던 패자

(오나라 족나라 동맹은 연의가 과장한 것)

진삼국무쌍 오리진



제발 그 다음 DLC 나왔으면 ㅠㅠ